

전관리국(GPTB)간에서 각각 홍콩-북경, 홍콩-상해, 홍콩-광둥성간에 전용선 원스톱쇼핑서비스(OSS) 도입에 합의했다. OSS는 국제전용선 서비스의 신청이나 지불에 있어서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수속을 어느 한쪽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중국이 외국 사업자와 이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홍콩텔레콤은 중국 우전부와 중국의 주요 19개 도시에서 홍콩텔레콤 및 C&W발행의 콜링카드 사용이 가능한 크레딧자동통화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여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셀컴, 캄보디아 進出을 計劃

말레이시아의 이동통신사업자인 Celcom(Cellular Communication Network)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이동통신에 대한 합작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내용이나 투자규모는 아직 미정이며 앞으로 캄보디아의 기반시설 및 기술수준을 조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Celcom은 캄보디아 우전총국과 합의할 경우, 9개월만에 대부분의 도시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분야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中國, 開放地區의 電氣通信改善 計劃을 發表

중국의 우전부는 개방지구의 전기통신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장 우선대상 지역은 CIS, 북한, 몽고, 미얀마, 라오스 및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는 13개 개방구이며, 이 지역 모두 인접국과 교역이 활발한 곳이다. 이 계획서에서는 DDD 및 ISD의 조기통화를 이루고 또한, 자동교환기의 설치나 셀룰러전화, 무선호출 등